

# “이사가려면 청소비 내놔” 원룸주인 횡포

### “안 내면 보증금에서 차감” 으름장... 신학기 대학생 피해 부품값 10배 청구하기도... 계약사항 아니면 낼 의무 없어

#1. 최근 광주보건대를 졸업한 박모(여·25)씨는 이사를 앞두고 원룸주인과 얼굴을 붙였다. 이사를 가야하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청소비 5만원을 떼고 주겠다”고 한 것이다. 새 세입자를 받으려면 방을 치워야 한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집주인은 화장실 콘센트가 고장났으니 새로 바꿔야 한다며 2만원을 달라고 했다. 2000원가량인 콘센트를 10배가 넘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씨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에서 청소비 5만원을 제외한 돈만 돌려받았고, 콘센트비용 2만원도 지불해야 했다.

#2. 전남대에 다니는 김모(22)씨도 학교 앞 원룸에서 살다가 최근 이사를 했다. 이사에 앞서 집주인과 청소문제로 마찰을 겪었다. 집주인은 김씨에게 “보증금을 안 준다”, “청소비 5만원을 빼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 김씨는 이사 전날 2시간을 들여 창틀과 싱크대 바닥을 청소했다. 집주인은 트집을 잡았다. 김씨는 집주인과 다툰이 싫어 2시간을 더 들여 방을 치우고 나왔다. 이사할 대학가 원룸주인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었다. 과다한 청소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소모품을 시중가의 10배 넘게 받아 챙겼다.

청소비는 통상 3만~5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기분이 언짢다. 계약서에 청소비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쥐야할 의무는 없지만, 안 내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한 늦게 주려하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많다. 박씨는 “대학생에게 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5만원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줬다”고 말했다. 광주 수완지구의 한 원룸에서 이사한 이모(25)씨도 주인의 횡포를 겪었다. 집주인은 청소용역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야 한다며 청소비 10만원을 요구했다. 박씨가 “부당하다.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그제야 보증금을 돌려줬다. 이같은 사례는 전남대 대나무숲 등 대

학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청소를 하는데 왜 떠나는 사람이 청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법무사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볼모로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들도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까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계약서에 청소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쥐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굳이 청소비 낼 필요 없이 쓰레기만 치우고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

# 이사회 공백사태 현실화... 혼돈의 조선포

### 25일 임기 만료... 이사회-대자협 개방이사 추천 놓고 갈등 교육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경고... 임시이사체제 가능성

조선포 이사회 임원 임기가 오는 25일로 만료되는데도 차기 이사진 선출을 위한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조선포가 '이사 부존재'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현 이사회 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차기 이사진 선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고' 공문을 학교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극심한 혼돈이 우려되고 있다.

조선포는 오는 25일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며,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 간 갈등이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사 부존재'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앞서 현재 이사회 임원 선임과 관련, 대학측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계고 공문을 지난달 발송, '오는 25일까지 차기 임원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현 이사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원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선포 규정(정관 24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20조 2)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나 '임시이사체제' 등의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차기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이사회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뿐 아니라 '이사회 공백'으로 인한 혼돈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관심 집중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수능대비 EBS강사초청 대학 입시설명회가 열렸다. 광주·전남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의 대입 진로·진학 특강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최혜미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3 해질 18:19  
달출 02:04 달짐 12:42

**쌀쌀해져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3/4	보성	비온뒤 6/5
목포	비온뒤 2/3	순천	비온뒤 8/7
여수	비온뒤 3/8	영광	비온뒤 1/2
나주	비온뒤 3/4	진도	비온뒤 3/4
완도	비온뒤 5/5	전주	비온뒤 3/3
구례	비온뒤 6/5	군산	비온뒤 1/2
강진	비온뒤 5/4	남원	비온뒤 4/4
해남	비온뒤 3/3	속산도	비온뒤 3/3
장성	비온뒤 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3.0~5.0	북서~북 3.0~5.0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2.0~3.0
남해 남부 앞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 남부 앞바다(서)	남서~서 2.0~4.0	북서~북 3.0~4.0

◇생활지수

니출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02	08:30
	14:30	20:30
여수	간조	만조
	10:13	03:47
	22:04	15:44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5/8	1/9	3/6	-2/6	-2/9	-2/10	-1/11

## 오늘 비... 그친뒤엔 기온 '뚝'

광주·전남지역은 20일 비가 그친 뒤 20일 영랑 낮 최고기온은 2도, 곡성·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쳐 낮부터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

## ‘스무살 천사’ 김하늘씨 동신대 명예 졸업장

### 2015년 뇌출혈로 쓰러져 7명에 장기기증

자신의 스무 살 생일에 7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하늘나라로 떠난 김하늘씨(광주일보 2015년 9월 14일자 6면)가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동신대는 오는 22일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2년 전 세상을 떠난 김씨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신대는 지난 1987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다. 소방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갑작스런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다가 지난 2015년 9월 9일(장기기증의 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실의에 빠졌던 김씨 부모는 미처 파위보지도 못한 채 숨겨진 아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김씨는 모두 7명에게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희망을 선물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 뒤 건강을 되찾고 중·고교를 거쳐 2013년 동신대 새내기로 입학했다.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도 아르바이트로 학비까지 보태는 든든한 아들이었다”고 부모는 기억했다. 동신대는 김씨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전달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

###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분양 모집중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 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